

일주문



제10회 오대산 디지털 사진공모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남 스님은 5월 31일까지 제10회 오대산 전국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연다.



보원사 철조석가야래 정안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은 4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돌려받은 서산 보원사 철조석가야래 봉안, 정안법회를 개최한다.



육조·진감·초의 108헌다례...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스님은 5월 2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제12회 육조·진감·초의선사 108헌다례를 개최한다.



탄신494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5일 대흥사 보현전에서 탄신 494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동국대 일산병원 삼존불 점안...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4월 9일 덕송 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모시고 동국대의료병원 법당 증축 기념 삼존불 점안법회를 열었다.



운암 김성숙 선생 45주기 추모제... 민성진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4월 12일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대허 스님)의 제45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법륜 스님 초청법회... 노희경 정토의 길벗 대표는 4월 7일 여의도사학연교화관에서 '법륜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영석고, '영석파크' 봉사단 발대식



동대사대부속영석고등학교(교장 김태원)는 4월 9일 교내 법당 정심원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영석파크 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86명으로 구성된 파코 봉사단은 발대식 후 의정부시에 소재한 송산노인복지회관(관장 범일)과 봉사활동 협약식도 체결했다.

범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활동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단원들은 2인 1조가 되어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을 주1회 이상 방문해 목욕시키드리기, 말동무 되어드리기, 세탁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비전 돼 온 복장의례, 전승에 앞장”

秘傳

‘대한불교 전통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 설립

그동안 비밀리에 전수되오던 복장의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보존회가 창립됐다.

‘대한불교 전통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회장 무관, 이하 보존회)는 4월 10일 서울 자운사에서 헌판식을 열고 보존회 활동을 알렸다.

보존회는 불복장점안의식에 함축된 불교 사상과 역사를 조명하고, 전통에 기반을 둔 21세기 불복장 점안의식의 새로운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에서 전통복장 및 점안의식을 전수받아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2012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모두 5명. 이 중 무관 스님(조계종 법계위원)을 비롯해, 총무 경암 스님(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 상암회원 성오 스님(삼장사 주지), 상암회원 도성 스님(복암사 주지)이 보존회를 구성했다.

조선후기 발원된 <조상경>을 중심으로 설행돼 온 복장의례는 그동안 설행자에 따라 복장물부터 그 절차까지 각양 각색이었다.

무관 스님은 “그동안 복장의례는 복작·난해할뿐더러 의례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개별적으로 이어져오던 의식을 통일하고 보존 전승하기 위해 올해



사진원폭 세번째부터 경암 스님, 성오 스님, 무관 스님(보존회 회장), 도성 스님.

무관 스님 회장으로, 5명 스님 주축 복장 의례통일안 마련 첫 목표로 7월 시연회·9월 세미나 개최 예정

안에 이론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시연회를 통해 여법한 불복장 점안의식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관 스님은 “복장의례는 물질로 이뤄진 부처님에 정정한 계율을 지키며 살아온 스님들이 공덕과 복덕, 지혜를 의미하는 복장물을 점안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라며 “배우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훌륭한 전수자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존회의 첫 번째 목표는 복장의례의 통일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관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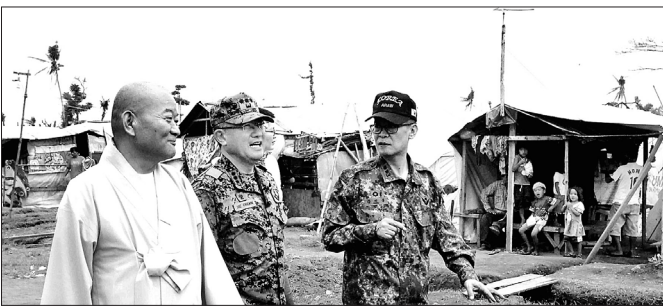
님은 “일례로 후령통을 종이로 제작하는 스님도 있고 은으로 만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논의를 통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관 스님은 “요즘에는 복장물로 오색실과 인쇄된 능엄경 등을 세트로 묶어 파는 경우도 보았다. 복장의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존회는 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관련 경전인 <조상경>의 스님들 소장본 연구도 진행한다. 불복장 사례 및 전승사례도 분석해 향후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종단 스님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보존회 명칭을 ‘대한불교’로 정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중 시연회를 열고 9월 중 세미나를 열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우 스님, 필리핀 파병부대 위문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4월 7~9일 필리핀 타클로반을 방문해 재해복구지역에 파견된 아라우 부대 장병을 위문했다. 이번 위문에는 군승 최선임인 2군작전사령부 남장 김갑영 법사와 국방부 근무지원단 경계 강희중 법사가 동참했다.

정우 스님은 4월 7일 아라우 부대(부대장 이철원 대령) 법당에서 부대안전 기원법회를 주관했다. 정우 스님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제평화지원단 법당에서 열린 필리핀 파병장병 환송법회에서 “인연이 되면 꼭 필리핀 현장에 방문해 법회를 열고 장병들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군종교구는 필리핀이 지난해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성금 모금을 전개 160여건, 3700만원을 모금했다. 정우 스님은 이번 위문 일정 중 8일에는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의 2차 지원금 2억 2000만원과 군종교구에서 모금한 3700만원으로 지원한 초등학교 9곳의 복구 완공식에 참석했으며 재해복구지역 현장과 무료급식소 및 의료지원 현장을 방문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신문 발간 3000호 기념법회



올해로 창간 54주년을 맞은 불교신문(사장 성직)이 지난 4월 7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구 하림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령 3000호 발간기념 축하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교신문이 사바세계에 탄생한 지 54년이 되는 날이요, 그 일성일성(一聲一聲)을 토해 낸 지 3000호에 이른 뜻 깊은 날”이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일당 포교사로서 불교의 대중화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으니, 호법신장이라고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불교신문 발행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지령 3000호를 맞아 불교신문 발행인으로 반세기 넘는 긴 시간동안 신문과 함께 해준 필자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신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포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은 “지령 3000호 발간을 계기로 더욱 문서포교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춘광 스님, 관문사 제 8대 주지 취임

전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서울 관문사 제 8대 주지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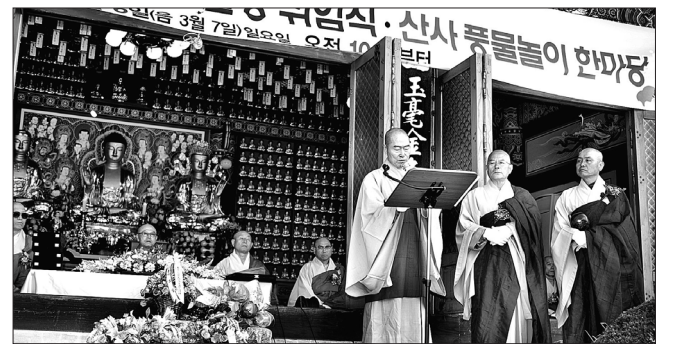


관문사는 4월 6일 옥불보전에서 제 8대 주지 춘광 스님(전태종 총무원장)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김희선 국회의원,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해 주지 춘광 스님과 부주지 월도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춘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조화와 공생의 사회다. 이웃이 잘돼야 내가 잘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관문사의 모든 불자들이 이같은 마음으로 살면, 관문사는 서울시민의 귀감이 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무량중 창종 15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한불교무량중은 4월 6일 총본산 하동 칠보정사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해안스님, 총무원장 보은스님, 휴심선원장 종성스님 등 종도 및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보살수계법회와 신임 총무원장 보은스님(광양 신흥사 주지) 임명식과 산사풍물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수계법회는 종정 해안스님을 수계사로 700여명이 수지했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 게이트볼 최강자를 가린다



강화도 전등사(주지 범우)는 4월 4일 강화군 김장면 공설 운동장에서 ‘제9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200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게이트볼 대회는 역대 최다인 129개 팀이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게이트볼은 어느 운동보다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므로 대화를 통해 팀원 간 우의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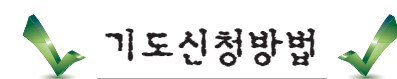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